

10명이 뿔 울산, 비겼지만 더 값진 '승점 1점'

울산, 2위 수원 후반 공세 파이프백으로 봉쇄
데얀 선제골·황현수 결승골...서울, 강원 격파
에두 2골 폭발...전북, 2위와 승점 7점차 벌러



특정 스트라이커의 득
주를 어떻게 봐야할까.
공정적 혹은 부정적?

8월 2일 울산문수경기
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수원삼성의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107' 24라운드 경기의 화두는 '화력 득
점'이었다.

수원 조나탄(브라질)은 두 팀 감독들에게 공
통의 고민으로 작용했다. 조나탄은 최근 4경기
연속 멀티골을 포함, 23라운드까지 득점 선두
(18골)를 질주해왔다. 원정 팀 입장에서 행복한
고민, 울산에게 'फल지거리'였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듣는다. (임대-완전
이적) 신분이 바뀐 뒤 편안함을 느낀 듯 하다"며
서도 "득점 편중의 우려가 없진 않다. 주변에서
의 골도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 김도훈 감독은
"경계해야 한다. 울스타전 휴식기로 리듬이 깨
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했
다.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은 공간 차단.

대인방어 대신 주위에서의 볼 배급을 사전 봉
쇄하겠다는 것이다.

두 팀에 몹시 중요한 경기였다. 12승6무5패
(승점 42)로 동률이지만 득점에서 앞선 수원
이 2위, 울산은 3위였다. 2위 굳히기에 5점차 가
시권에 든 '선두'전북현대를 따라잡기 위해선
승리가 필요했다. 울산이 유리해 보였다. 지난
해부터 울산은 수원에겐 적이 없다. 4승1무,
올 시즌 2차례 모두 2-1로 이겼다. 김 감독은
"5월 첫 만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

스리그로 인한 전력배분에서 우리가 유리했고,
7월 리턴매치는 조나탄이 뛰지 않았다"면서
'승리 징크스'가 이어지길 바랐다.

전반부터 치열했다. 수원이 먼저 균형을 깬
다. 전반 7분 이종성이 상대 수비 실책을 틈타
골 망을 갈랐다. 곧장 울산도 반격에 나서 전반
31분 오르샤의 중거리 슈트로 명군을 불렀다.
교체도 빨랐다. 동점이 되자마자 수원 수비에 약
점을 보인 한승규를 빼고 박용우를 투입했다.

그런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치명적인 장면이
나왔다. 울산 오른쪽 풀백 김창수가 세트피스 대
기 상황에서 팔꿈치로 이종성의 가슴팍을 때려
넘어트렸다. 즉각 퇴장. 수적 열세에 몰린 울산
은 후반 6분 왼쪽 풀백 이영재를 빼고, 중앙수비
수 최규백을 투입했다.

이후 서로의 바람은 간단해졌다. 수원은 조나
탄의 쇼 타임, 울산은 방어였다. 파이브(5)백으로
전환된 울산의 뒷문은 한층 단단했다. 상대가 절
묘하게 파울을 유도하고 과감한 역습으로 시간을
알차게 쓰자 수원은 허둥했다. 결국 1-1 무승부.
똑같은 승점 1이지만 울산에 훨씬 가치가 컸다.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에두의 2골로 3-1
승리한 전북은 승점 50 고지를 선점, 격차를 승
점 7로 벌렸다. 10명이 뛰어도 이기는 전북과 달
리 기회를 스스로 건어낸 결과는 수원에겐 치명
적이다.

대구FC를 2-0으로 제압한 4위 제주 유나이
티드(승점 40)가 1경기 차로 위협해왔다. 제주
는 23경기 밖에 치르지 않아 실질적인 격차는
없는 셈이다.

시즌 15호 골을 신고한 데얀의 활약으로 강원
FC에 3-1 승리를 챙긴 FC서울(승점 37)은 5위
로 뛰어 올랐다. 8위 전남 드래곤즈도 삼상삼무
를 2-0으로 제압해 하위권과의 격차를 넉넉히
벌렸다. 울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선제골·자책골... '롤리코스터' 탄 배슬기

(포항)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다. 포항 스틸러
스 수비수 배슬기(32)의 하루가 딱 그랬다. 광주
FC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017' 24라운드가 열린 8월 2일 포항 스틸야드.

23라운드 종료 이후 열흘 가까이 울스타전 휴식
기를 보낸 만큼 양 팀 선수들은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배슬기였다. 주장 황지수와 부주장
양동현이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
하면서 배슬기는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무거운 짐은 주장 완장뿐만이 아니었다.
포항은 이날 경기 전까지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 최근 4연패,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며 침
체된 팀 분위기를 역시 임시주장으로 끌어올려
야했다.

자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을까. 배슬기는 초반부터 공수를 활발히 오
가며 동료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첫 골이 손쉽게
나왔다. 전반 7분 손준호의 크로스가 이상기의
등을 맞고 나온 퓌를 놓치지 않고 원발로 선취골
을 만들어냈다. 올 시즌 자신의 첫 번째 득점.



그러나 마술기 골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
했다. 16분 뒤 악몽 같은
자책골이 나왔다. 전반
23분 광주 주현우가 왼쪽
에서 울린 코너킥이 수비
수와 공격수를 교묘하게
피해했고, 뒤에 서있던
배슬기의 왼쪽 허리를 맞고 그대로 골라인을 넘
었다. 포항 끌기파 강현무가 손을 채 쓸 틈이 없
을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배슬기는 물
론 포항 선수들 역시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은 채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부정했다. 배슬기 처럼 골
과 자책골을 동시에 기록한 경우는 K리그 클래식
통산 18번째이고 올 시즌에는 처음 나왔다.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사실 원제목
과 정반대의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 다만 배슬기
는 팀이 후반 1-2 열세를 심동운과 톨리냐의 연
속 골로 극복하고 3-2 역전승을 거두면서 마지
막에 웃을 수 있었다.

포항 | 고훈준 기자 shulout@donga.com



FC서울의 황현수가 8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4라운드 강원FC와의 경
기에서 후반 39분 결승골을 터뜨린 뒤 원호하고 있다. 심암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현장 리포트

바닷바람이 에어컨 울산에게 내린 선물

클럽하우스도 다른 구단보다 4도 낮아

혹서기를 보내고 있는 K리그 클래식(1부리
그) 구단들의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
나가 탈 없이 여름나기다. 대부분 지역이 황시
무덥고, 습한데다 시도 때도 없이 동남아시아를
연상시키는 소나기가 쏟아지곤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훈련도, 경기도
어렵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생각처럼 쉽
지 않다. 일부 팀들은 틀날 때면 단기 전지훈련
을 떠나고, 선수단에 보양식을 먹이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울산현대대는 고민의 수위가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기후에서 꾸준하게 몸을 만
들기 때문이다. 울산은 올 시즌 모든 풀 트레이
닝을 바닷가에 인접한 강동 훈련장과 현대미포
구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북현대와 함께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클럽하우스(서부구장) 훈련장이 잔디보식과 그
라운드 재질비에 도입한 탓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도 타격은 전혀 없다. 같은 울산 권역
이지만 도심과 훈련장 기온이 전혀 다르다. 수원
삼성과의 클래식 정규리그 24라운드 홈경기
가 열린 8월 2일 한낮, 울산 최대 변화기인 삼산 지
역이 섭씨 29도를 가리킬 때 강동 훈련장은
25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간간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시원함마저 느껴졌다. 선수단이 홈경기
를 위해 머문 클럽하우스 또한 26도로 상당히
쾌적했다. 여름 한낮에는 1~2도 차이조차 엄청
난 영향을 끼치는데 4도 가량 낮은 기온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굳이 아쉬움을 꼽는다면 치열한 2위 싸움이
펼쳐진 울산문수경기장의 기온이 섭씨 29도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울산은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손꼽힌다.
항시 온화한 기후를 자랑해 축구뿐만 아니라 다
양한 종목 스포츠 팀들이 울산에 머물며 훈련을
한다. 동해바다를 연안에 끼고 있어 여름은 덥
겁고, 겨울은 덜 추운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혜
택을 연중 내내 보고 있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도 다른 도시와는 전혀 다른 울산 훈련장의 독특
한 기후에 크게 만족해한다는 후문이다.

울산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부터 강동 훈련장에서 몸을 풀고 있
다. 울산 관계자는 "우리만의 프리미엄이다. 선
수들만 크게 지루해하지 않는다면 굳이 외지로
많은 돈을 들여 전지훈련을 떠날 필요가 없다.
직원들이 외근만 나가도 시내의 후텁지근한 날
씨에 깜짝 놀라는데, 선수단이 주로 머무는 장소
는 전혀 다르다"며 웃었다. 울산 | 남정현 기자

박지성 내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박지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
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8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
터에서 한국축구 메리트 박
지성(36)의 홍보대사 위촉
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
다. 위촉식에서 박지성은 이
희범 위원장으로부터 위촉
패와 대형 명함을 전달받은
뒤 소감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성은 2002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최고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
원으로 활약했다. 2014년 현역 은퇴 뒤 국제축구
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에
서 스포츠 경영, 법률 등을 배우고 있다.

'이적 불가' 네이마르, 바르셀로나 복귀



네이마르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는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이
파리생제르맹(PSG) 이적
설이 풀리지 않는 네이마르
(25·바르셀로나)의 이적
허용 불가 방침을 결정했
다"고 2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PSG는 네이마
르 영입을 위해 2억2200만
유로(약2940억원)의 이적료를 준비하고 선수
와 이적협상을 이미 마쳤다는 보도가 나온 상
황이었다. 이에 라리가 사무국은 재정적 패어
플레이 규정(FFP) 위반을 이유로 들어 타 리그
로의 이적을 막기로 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은 2012년 리그의 모든 구단이 해마다 벌어들
인 수익보다 많은 돈을 선수 영입에 투자하
지 못하도록 FFP규정을 도입했다. 한편 이적
소동의 주인공 네이마르는 2일 개인일정을 마
치고 소속팀에 복귀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클럽하우스·천연 잔디구장...전북, 유소년 축구타운 세운다

100년 클럽 꿈꾸는 전북의 새 도전

완주군 성인 클럽하우스 인근 부지 확보
육성 공간...AFC 우승상금이 시드머니
단장 "미래 준비, 성인팀 운용만큼 중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현대대는 '클럽 이
상의 클럽'을 꿈꾼다. 오늘과 올해만 버티려는
하루살이가 아닌, 100년 클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놓은 야심 찬 계획이 유소년 전문
축구타운 설립이다. 전북 완주군의 클럽하우
스 인근에 부지가 확보된 가운데 천연 잔디 그
라운드 1개, 인조 잔디 그라운드 1개 면을 유소
년 전용 훈련장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훈련장이 추가 되는대
로 유소년만을 위한 클럽하우스까지 마련한
다. 코칭스태프와 지원스태프까지 최대 1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일단
U-15(금산중·34명), U-18(영생고·40명) 선
수들이 수혜자다. '100명'을 수용규모로 잡은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전북클럽하우스를 찾은 전북 유소년 선수단에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현대

이유다.

전북 백승권 단장은 8월 2일 "성인 팀을 튼
실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작
실하게 준비하는 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유
소년 축구타운은 우리 구단의 미래를 의미한
다. 궁극적으로 100년 클럽의 시발점이다. 아
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빈틈없이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 클럽하우스에는 2개의 천연 잔디
훈련장이 있고, 반면짜리 인조 잔디구장이 실
내에 마련돼 있다. 대부분 성인 선수단이 사용
하고 있다.

앞으로 유소년 전용 그라운드가 마련되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은 최적의 환경
에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전북은 유소년 축
구타운 건립을 2년여 전부터 준비했다.

남정현 기자